

Toluene, 미국산 유입 45달러 폭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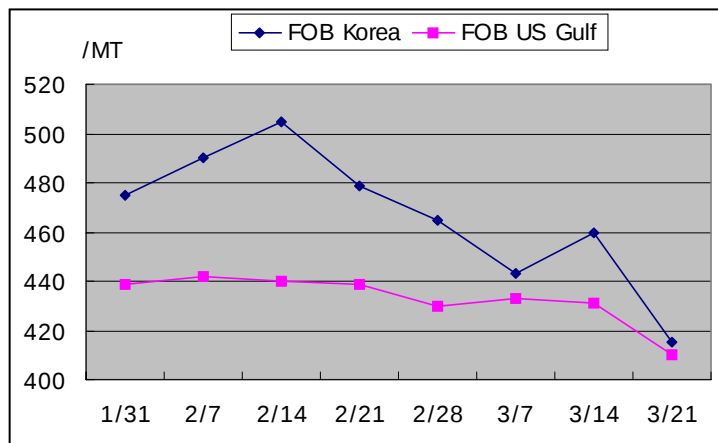
FOB Korea 410-420달러 형성 ... 호남은 400-405달러 판매까지

Toluene 가격은 3월21일 FOB Korea 톤당 410-420달러로 45달러 폭락했다.

아시아 톨루엔 시장은 미국-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유가 및 나프타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크게 하락했다.

이에 따라 4월 중순 거래물량 2000톤이 3월17-18일에는 CFR Taiwan 톤당 430달러를 형성했으나 20일에는 3월 거래물량 4000-6000톤이 FOB Korea 톤당 413달러로 하락했다. 3월 공급될 예정인 미국산 2000톤이 CFR China 415달러에 곧 도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톨루엔 가격추이



더군다나 호남석유화학은 Solvent-MX 구매를 조건으로 4월 상순 거래물량 1500톤을 FOB Korea 톤당 400-405달러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톨루엔 가격약세를 부추겼다.

LG-Caltex정유가 신규 MTPX 플랜트를 3월말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톨루엔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여천NCC가 No.1 BTX 플랜트를 정기보수하기 위해 3월31일부터 한달간 가동을 중지할 예정으로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미국의 톨루엔 가격은 3월21일 FOB US Gulf 갤런당 134.00-136.00센트로 톤당 평균 410달러를 형성해 21달러 급락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3/03/27>